"금감원 감독소홀" "대통령 사과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저축銀 비리' 책임공방

김 총리 "감사위원 불법행위로 서민 고통 죄송"

7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저축은행 사태가 집중 거론됐다.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여야 간의 전·현 정부 책임공방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감원의 부실 감독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점입가경"이라면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와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노무현 정부 시절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을 들며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출신의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김 총리가 언급했던 '오만군데'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회가 참여하는 '국민감독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화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화저축은행 로비스트였던 이철수씨를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강래 의원은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5월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8개월간 사태를 방치한 것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의식한 처사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죄송하게는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불법적 행위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동영 의원실 주최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1인2표제·여론조사 반영' 유지

한나라 전국위 '전대룰' 확정 … 신주류 주장 수용

한나라당이 오는 7·4 전당대회를 현행 당헌·당규의 여론조사 30%와 1인2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확정하면서 친이(친이명박)직계에 치명타를 날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741명의 전국위원 중 431명(위임장 266명 포함)이 참석한 전국위원회에서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기존과 같이 여론조사 30%를 투표 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또 선거인단 1명당 2명에게 투표하는 '1인2표제'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적용키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인단을 1만명에서 21만여명으로 늘리는 대신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1인1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지만, 당내 쇄신파와 일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가 결정한 1인1표제 대신 현행대로 1인2표제로 전대를 치르기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 같은 전국위 및 상임전국위 결정은 '1인2표제와 여론조사 폐지'가 친이직계가 당권을 장악하려는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온 소장파 등 신주류 주장을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이 수용했다는 의미로, 정의화 비대위원장 등 친이직계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로 해석된다.

이처럼 비대위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친이직계 영향력은 급속 약화하면서 7·4 전당대회에서도 한나라당 내 권력이동이 한층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손학규 가상대결 격차 좁혔다

대선 여론조사 … 수도권 중도층선 孫이 앞서

차기 대선주자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도권에서 박근혜-손학규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크게 좁혀지고 중도층과 20~30대에서는 손학규가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31일에 실시한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박 대표는 49.2%, 손 대표는 37.6%로 양차간 격차는 11.6%포인트였다.

이는 4·27재보선 직후인 5월 9일~11일 실시했을 때의 '50.3%대 33.1%'와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박 전 대표 지지율은 급락했지만 손 대표 지지율은 급등하면서 양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박 전 대표는 서울에서 8.4%포인트 하락하며 44.7%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손 대표의 경우 9.6%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박 전 대표와의 격차를 2.6%포인트로 크게 좁혔다. 경기·인천에서도 박근혜 45.7%, 손학규 41.3%로 양자 격차는 4.4%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박 전 대표(78.9% vs 9.5%)가, 진보층에서는 손 대표(30.6% vs 58.2%)가 각각 앞섰으며 중도층은 지난 5월초 조사와 달리 오차범위 내에서 손 대표가 소폭 앞서는 것(박근혜 42.4%대 손학규 44.2%)으로 조사됐다. 5월초 조사에서는 '43.6%대 39.7%'로 박 전 대표가 앞섰었다.

또 20~30대에서도 손 대표의 지지세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월초 조사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박 전 대표가 앞섰지만 이번에는 20대와 30대에서는 손 대표가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유선전화 1200명, 80% + 휴대전화 300명, 20%)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 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수부 폐지' 갈등 확산

靑, 반대입장에 민주·與 소장파 반발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 편을 들자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와 검찰 간의 '빅딜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입장은 정치권을 겨냥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의 사전 교감 속에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에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라며 비판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설 것이고 특수수사청 설치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청와대·검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향해 번져 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청와대는 이날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 구태정치"라며 빅딜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소장파와 사개특위 위원들까지 청와대를 질타하고 나서는 등 당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검찰에 대해 여러 불평불만이 있는 줄 알지만 검찰 조직을 어떻게 둘지는 행정부 내부의 조직 문제인 만큼 행정부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맞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민주, 당론 변경키로

민주당은 7일 등록금 인하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론을 변경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당 반값등록금 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보완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등록금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면서 "국·공립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솔선수범토록 하고,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인하해도 등록금이 반값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하한 수준과 반값 등록금 수준간 차액에 대해서는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 소득 5분위에는 30% 등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의원 오늘 출판기념회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 갑)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동산에서 자신이 쓴 '목욕탕 이야기 2'와 '지구생각' 등 2권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두 권의 책은 강 의원이 평소 일기를 통해 의정활동을 성찰해 온 자신의 정치철학과 고민이 담겨있다.

'목욕탕 이야기 2'는 지난 2008년 출판한 '강기정의 목욕탕 이야기'의 후속편으로, 국회 목욕탕을 즐겨 이용하는 강 의원이 목욕탕에서 만난 의원들과의 에피소드를 일기형태로 소프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구 생각'은 강 의원이 아들 지구와 나눈 대화를 엮은 것이다. 아빠가 글을 쓰고, 아들이 삽화를 그렸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1차 보고회

광주시 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9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동·서부 교육장 등을 출석시켜 1차 보고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정희곤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인사, 계약, 학교회계, 시설개선사업, 신설학교 기자재, 시스템에어컨 시설공사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자료검토를 마치고 대상 공무원을 출석시켜 확인 및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답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옥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팀	남/여	코스, 조경관리	경력/신입
시설관리팀	남	설비, 보일러, 전기	방화, 위험물관리 자격소지자
식음료팀	남/녀	조리사 웨이터/웨이츄레스 주부사원	경력/신입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복지제도】
기숙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년차휴가, 주1회 휴무 하계및 동계휴가 교통비 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접수방법】
◦우 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팩 스 : 061)320-7710
◦E-mail : seungtae01@naver.com
◦전 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½정을 3~7일 정도를 연속 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